

전북도,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인명보호 최우선... 관리전담제·기상특보 시 24시간 상황근무·조기경보체계 확립 등

올해 여름철 후반부 라니냐에 의한 강한 태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장마 등에 대비해 도민의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시스템이 적극 추진된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은 후반부에 라니냐에 따른 국지적 강우와 강한 태풍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 슈퍼엘니뇨(1997년)에 이은 1998년도 라니냐 발생으로 인한 피해 증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라니냐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도는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태풍·호우 등의 기상특보 발령 시 24시간 상황근무 등 한발 빠른 상황근무체계를 확립하고 기상관측시설(210대)과 CCTV(109대)를 활용해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 조기경보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무엇보다 인명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전담제를 실시하고 인명피해 징후 발견 시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 특보시 학생들의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유동



수산업 경영인대회 개최 제7회 전북수산업 경영인대회가 28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도지사(왼쪽)와 문동신 군산시장 및 참석자들이 해양선박 엔진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적으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발생시에는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이재민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도는 기상상황 및 재난 유

형별 마을앰프, 행정차량 등을 활용한 현장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풍수해 대비 도민행동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 각자의 재난 극복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민안전실 관계자는 "풍수해 대비는 사전 준비 단계로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민 스스로 안전 생활화 실천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중국 BGX와 '새만금 콜드체인단지' MOU

군산시-새만금개발청 투자설명회에서... 3400억 투입 예정

군산시의 새만금개발청은 28일 서울 G스타워킹센터에서 전라북도·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기업체 대표와 사업관계자 등 300여명을 초청해 '2016년도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인 미주·유럽·일본·중국 기업 유치에 통한 새만금지역의 조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투자환경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설명과 함께 새만금산업단지 첫 번째 입주기업인 일본 도레이첨단소재사가 투자사례를 설명해 참석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중국 장쑤통형물류발전그룹유한공사(BGX)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내에 '새만금

콜드체인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콜드체인단지'는 국내외 농산물의 집산, 냉동·냉장, 농산물 가공생산 및 성과를 무역과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등이 일체화된 단지로 새만금 산업 단지 내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약 1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협약은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출관세에 인하여 중국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대 중국 식품제조 및 가공,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BGX의 새만금 투자는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문정근 기자

익산시, 불법 폐기물매립 철저한 수사 촉구

익산시가 폐석산에 발암물질이 수년 간에 걸쳐 불법매립한 것에 대해 사업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스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차적인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매출자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며, 폐기물이 일반인 지점 폐기물인자의 유무를 판단하고, 처리업체가 소재한 자치단체에서는 이 판단을 받고 따르고 있다.

이번 불법 폐기물매립 역시 배출자가 소재한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급한 일반폐기물신고서를 근거로 익산시는

반임처리를 했다. 환경부에서도 지정 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일반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항을 문제시하는 상황이다.

현재 익산시에는 3,400여개소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가 있으며 연간 약 2,200여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총 4명으로 모든 처리업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용호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역 환경을 해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개탄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환경부의 올바로스시스템과 배출자 신고의 개선방안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영필 기자

노후 경유차 폐차·신차 구입시 개소세 70% 감면

하반기 정부 정책 방향... 대당 최대 143만원 저렴... 친환경차 인센티브 부여해야

정부가 친환경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후 경유차 세금 감면을 내놓았다.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이면서 소비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대책이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같이 소비를 끌어올리기에 미흡하고 그렇다고 친환경 소비 진작에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대책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사는 사람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줄기로 했다.

세금 감면 수준은 대당 최대 1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고려할 경우, 최대 143만원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06년에 등록된 차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등 배출 가스가 9배 가량, 2000년 등록 차는 25배 정도가 더 나온다"며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혜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후 차 교체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70%를 감면했다. 당시, 약 38만대가 신차 교체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노후 경

유차 '폐차'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에서 대형 경유차 등으로 바꾸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년 뒤에 다시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을 해야한다.

반면, 외국의 경우 노후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할 때에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9년 이상 된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신차를 구매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데에만 집중한 대책"이라며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개소세 인하만큼의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를 진행했던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월평균 25.5%씩 증가했다. 마지막 12월에는 판매가 36.9%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보다 17만대 늘어난 184만대를 판매했다.

올해 1월에는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자동차 판매가 6.3%로 감소했다. 2월에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자 두 자릿수 증가율(10.1%)을 회복했고 3월에도 21.5%나 늘었다.

이에 비해 노후 경유차 세금 감면 때문에 신차로 전환하는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차량의 10%에 해당하는 10만대 정도의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이 신차 구입에 나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응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응변인협회 전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